



선교소식

캄보디아 TASSEL

지난 12월 28일 캄보디아 TASSEL의 조지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지난 12월, 태국과 국경에서 투쟁이 있어 조지 선교사님이 TASSEL 학교가 있는 타타오크 마을의 피난민들을 바탐방 마을로 대피 시켰습니다. 아래에 언급되는 모리아 교회는 나성교회와 TASSEL에서 지원하는 지역 교회입니다.



나성교회의 귀한 후원 덕분에, 모리아 교회는 어제 어린이를 위한 오전 예배와 성인들을 위한 오후 예배로 두 차례에 걸쳐 크고 은혜로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타 타오크 마을에서 피난 온 주민 70명 전원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더욱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타 타오크는 국경과 매우 가까워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야 했던 유일한 TASSEL 마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주민들이 서로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또한 저희 교사들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머물고 있던 대피소는 엄밀히 말해 TASSEL 소속이 아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바탐방 인근에 폭탄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크리스마스 당일과 토요일에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양케아 선생님께서 통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주일에는 모두를 모리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렌 목사님과 모리아 교회 성도님들은 타 타오크 주민들이 진심으로 환영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껏 섬겨주셨습니다. 참석자 중 세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회 예배가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예배에는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오후 예배에는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성인들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어제 예배에 참석한 총 200~250명 가운데 70명은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들이었으며, 모리아 교회는 인근 마을에도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많은 이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예배 참석 인원은 약 20~30명 정도입니다.) 어제 예배와 사역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함께 첨부합니다. 단체 사진은 대피소에 머물던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Sermon of the Week:

When the Mouth Declares What the Heart Believes



Passage: Romans 10:10 (ESV)

Date: January 18, 2026

Pastor: Dong Suk Chung

A person who ate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departed from God, then developed a sense of "self," placing themselves as their own master instead of God. As a result, although they have no real ability to create or resolve anything, they live striving and worrying just to survive. Thus, they mistakenly think that becoming a citizen of heaven will require a great deal of their own efforts. However, the Bible declares that it is very simple: "For with the heart one believes and is justified, and with the mouth one confesses and is saved" [Romans 10:10]. There is nothing that a person must try to accomplish on their own to receive forgiveness of sins.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Jesus, to bring the old creation to an end and to bring forth the new creation. The good news is this: we must simply hear this message, accept it, and believe it. And when we confess this belief with our mouth by saying "Amen," salvation comes.

The human body has many parts, but the role of the mouth is especially important. It is through the mouth that we eat so that the whole body lives; and it is through the mouth that God spoke and creation came into being. When the angel Gabriel delivered God's promise to give a son to Zechariah, the father of John the Baptist, Zechariah could not accept this promise and became mute. But when John was born and the promise was fulfilled, Zechariah's mouth was opened and he praised God. Even today, there are many people like Zechariah within the church. They do not know how to eat the Word by accepting it nor how to confess it. Even when they hear the good news, they cannot open their mouths; they feel ashamed, as if opening it would bring punishment. Because they do not confess God's Word with their mouths, they remain spiritually mute.

If you have heard and believed the word of redemption in Jesus Christ, you must immediately declare it with your mouth. God created us in His image and likeness so that He could dwell within us. What God does when He comes into a person is to live a life that manifests God and reveals the Word. When salvation has occurred through the Word, confessing it with the mouth causes that Word to bring forth life. W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 creation occurred. Thoughts alone don't bring about events or change. Light comes into existence the moment it is spoken and proclaimed aloud.

Before the cross, Jesus alone carried out this work in Judea, but through the cross and resurrection, He has given that life to each person and has called us to reveal this salvation to the whole world.

In the text, "with the heart one believes" is the matter before God, and "with the mouth one confesses and is saved" is the matter before people. Therefore, when we believe with the heart and confess with the mouth, it brings glory before God and salvation before people. The first thing that a saved believer should do is to be baptized. People often think that baptism comes after believing and being saved, but the Bible says,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Mark 16:16]. The act of going into and coming out of the water is a public declaration before God and people that one has become a citizen of heaven. Therefore, faith is precious, but proclaiming that faith is even more precious, and the rite that proclaims it is baptism.

Nevertheless, the reason that many people today receive salvation yet cannot confess with their mouths is the fear of people. They fear being ignored or shamed, so they hide their relationship with Jesus. It is the "self" that is embodied by Satan that makes believing in Jesus feel shameful. The message of the cross may seem foolish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If you have heard the word of truth and received God's life, you must use your entire body to praise the Lord and testify about Jesus. In the past, we used our lips as Satan directed; now we must become a spiritual instrument of God, speaking and proclaiming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We are new creations in Christ. We should not look for evidence within ourselves, but in Jesus. Believe that all sins have been forgiven in Him and live by that faith. The New Testament doesn't command us to act in order to achieve something; instead, it tells us to believe that it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 for us. Therefore, do not accept the thoughts and feelings rising from the "self"; believe only the Word, eat it, and proclaim it—then the Holy Spirit will work. Even when there is sickness, we command our souls with the Word that healing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 Then it will be done according to your faith—because in Jesus everything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

The Word is the food given to us and we must eat it with our mouths and proclaim it with our mouths. Every time a difficult situation arises, when we believe "I have no problem, I have been set free," the Lord rejoices. We who have welcomed Jesus into us are His witnesses,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May the rest of our lives be lived as witnesses in whom salvation is revealed every time we open our mouths.

심나소식

나성교회



심성교회

2월 1일 2026년

NASUNGCHURCH.NET

92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로마서 10장 10절

날짜: 1월 18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생기며 하나님 대신 자신을 주인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만들어내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애쓰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조차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사람 편에서 노력하고 애써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옛 창조를 끝내시고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진 후, 그 내용을 입으로 아멘 하며 시인할 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입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입을 통해 먹음으로 몸 전체가 살아 가고, 입을 통해 말함으로 창조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Gabriyel이 전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말 못 하는 병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태어나며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가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 먹을 줄도, 시인할 줄도 모릅니다. 기쁜 소식을 들어도 입을 열지 못하고, 마치 입을 열면 벌을 받는 것처럼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병어리가 아닌데도 신앙적으로 병어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다면, 즉시 입으로 말씀을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즉 말씀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를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속 생각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밖으로 선포될 때 빛이 탄생됩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홀로 유대 땅에서 이 일을 하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생명을 각 사람에게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요, 사람 앞에서는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중 첫 번째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막 16:16).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귀하지만,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더욱 귀하며, 그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시당할까,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 예수와의 관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탄의 체현화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

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내 몸 전체를 동원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입술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빛이 사해졌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되었다고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옛 몸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만 믿고 먹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병이 있을 때도 말씀 안에서 이미 고쳐졌음을

흔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쳐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며, 입으로 먹고 입으로 외쳐야 합니다. 매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자유를 얻었다 믿을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증인입니다. 남은 삶 동안 입을 열 때마다 구원이 나타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소식

- 오늘 2부 예배 후 2월 정기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 (2월 8일)부터 구역모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영아부와 유년부에서 봉사해 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한달에 한번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영아부는 아기 돌봄이고, 유년부는 분방공부를 가르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사무실이나 이보현 자매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과 KM 연합으로 합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교우들은 최연정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양희 집사 86세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희순 집사 어깨 수술 (오른쪽 회전근개파열) 후 재활치료 중인데 왼쪽 어깨와 팔목 통증이 심합니다. 재활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무릎관절 수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오른쪽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영강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연경 형제 베드로선교회 방광암 치료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고원창 집사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묘자 권사 모세회 천식으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